

□ 중국 국가지식산업전략망, 중국4G표준기술 TD-LTE의 국제표준화 및 시범서비스 추진 현황 공개

- 3월 25일, 중국 국가지식산업전략망(国际知识产权战略网)은 중국의 4G 표준기술인 TD-LTE(Time Division Duplex Long-Term Evolution)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과 중국내 시범서비스에 대해 공개함
 - 2011년 4월,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에서 LTE Advanced와 WiMAX Advanced가 국제 표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
 - LTE 기술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WiMAX와 비교하여 4G 시장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
 - * TD-LTE는 중국의 China Mobile社의 주도로 개발한 4G 이동통신 기술로 중국 3G표준기술인 TD-SCMA를 기초로 만들어짐

- 중국정부는 TD-LTE의 국제표준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TD-LTE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
 - 2011년 2월, China Mobile社는 인도, 일본, 유럽, 미국 등의 통신사업자들과 「글로벌 TD-LTE 이니셔티브(GTI)」를 창설함
 - 미국의 Apple社는 China Mobile社에게 TD-LTE 버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
 - 독일의 3대 이동통신업체인 E-Plus Group社는 TD-LTE를 시범서비스 하기 위해 중국의 China Mobile社와 ZTE社에게 각각 네트워크 운영관리와 기지국 개발을 맡김
 - TD-LTE은 7억 명이 넘는 중국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지는 잠재적 가치로 인해 세계 많은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됨

- 중국은 2011년에 TD-LTE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2010년 말 공업정보화부(工业和信息化部)는 China Mobile社의 상하이(上海), 항저우(杭州), 난징(南京), 광저우(广州), 선전(深圳), 샤먼(厦门) 등 6개 도시에 대한 TD-LTE 시범서비스를 승인함
 - 광저우와 선전은 지난 아시안게임 동안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220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9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작업을 마칠 계획임
 - 2011년 3월, 서비스 대상 도시에 베이징(北京)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총 7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
 - 중국은 4G가 상용화되어도 2G와 3G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- 기존에는 TD-LTE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아 중국내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을 통해 미국, 일본, 유럽 등으로 세계화를 시키고 있으며 국제표준기술 후보에 포함됨

<자료원 : www.nipso.cn, 2011.3.25>
<http://www.nipso.cn/one news.asp?id=11243>